



함께하는 인천지부 소식

**소통과 단결로
다시 세우는 인천지부!**

■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김현동 ■ 발행일: 2026년 7월 6일

금속노조 중앙교섭결렬 7.15 파업 돌입!

조합원 단결로 금속노조 투쟁 승리! 각 지회 임단협 요구안 쟁취하자!

6월 23일 중앙교섭 결렬

금속노조는 '모든 제조업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함께 싸운다'는 산별노조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매년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교섭을 통해 '주 5일제 쟁취'처럼 사업장 현안을 넘어 산업 전반의 의제를 요구하고 쟁취해왔다(현재 69개 사업장 참가 중). 올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9차까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 측이 안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23일 금속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29일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이후 7.15일 1차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부, 지회도 쟁의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투쟁에 돌입한다.

※ [참고] 중앙교섭 요구안: AI 관련 인권 및 고용, 정년연장, 초기업교섭 활성화, 금속산업 최저임금

각 지회별 보충교섭 진행 중

전국의 각 지회들 역시 2026년 임(단)협 교섭에 돌입한 상태다. 올해는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 뿐아니라 사업장 성격에 따라 업종별교섭까지 진행한다. 중앙교섭과 각 지회 보충교섭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최대한 시기를 맞춰 임금 및 단체교섭에 돌입했으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존재한다.

※ [참고] 각 지회별 보충교섭 현황

KM&지회 1차교섭(6.30) / 창성지회 5차교섭(7.3) / 한국펠저지회 2차교섭(7.2) / 한국ITW지회 5차교섭(6.24)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7차교섭(6.23) / 현대제철지회 8차교섭(7.1) / 삼성전자서비스인천지회 10차교섭(7.1) / 대한솔루션지회 9차교섭(6.24) / 현대모비스인천부품사업소지회 5차교섭(6.30) / GMTCK지회 1차교섭(7.6) / 부평공단지회 8차교섭(6.24) / 현대ISC지회 7월 예정 / 동광기연지회 25년 임금교섭 조인식(7.3) 26년 교섭 상견례 예정

사업장마다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은 요구안 관철을 위해 임단협 투쟁이 각 사업장에서 전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AI의 도입과정에서의 고용안정 및 인권, 정년연장과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같은 제조업 노동자 전반의 문제를 쟁취하기 위해, 중앙교섭을 지지 엄호하는 투쟁을 벌여갈 것이다. 2026 투쟁 승리를 위해 조합원들의 관심과 투쟁 참여를 당부드린다.



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한다!

한국지엠 사내 부속의원, 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용하지 못하는가?!

최근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참담한 안전 실태가 드러났다.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사내 부속의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고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시를 받아, 문제가 생겨도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현장 관리상의 실수가 아니다. 산재 은폐 및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적 사안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온갖 차별적 처우가 만연한 현실 속에 이제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과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담한 노동현장을 볼 때 원청교섭은 정당한 권리이자 불가피한 요구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보건 문제는 원청교섭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청업체 노동자 역시 한국지엠 사업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이자, 원청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고 다친 몸을 숨겨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로부터 사안을 확인한 한국지엠지부는 공문을 통해 부속의원 이용 제한 및 불이익 암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관리자 대상 건강권 보호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한국지엠에게도 원청차원의 특별조치를 요구했다. 인천지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지회와 함께 사업장 내 차별적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한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문제를 비롯해 원청이 관여하는 여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청교섭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길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활동 재개



몇 년 간 가동되지 못했던 인천지부 여성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6월 16일 각 지회 여성사업담당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는 일터와 삶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공유하며, 인천지부 내에서 작은 사업들이라도 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여성위원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최소 분기별 1회 이상)과 하반기 여성조합원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성적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여성의 권리가 왜곡돼 인식되지 않는 가운데 각각의 성이 우애롭게 공존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이 나이와 성별, 경험의 차이와 기타 어떤 이유로도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을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다채로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렵게 모인 여성위원회 동지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

14기 지부-지회 당선인 의무교육 진행



금속노조 각급의 직선 임원이라면,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선출직 임원의 역량강화 및 인식의 통일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인천지부 당선인 의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지부 임원과 15개 지회 임원 총 45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참가하지 못한 일부 인원에게는 7월 10일 보충교육이 열린다.

교육의 주제는 1강) 2026년 산업경제 정세전망, 2강) 금속노조 현황과 과제로 구성됐다. 노동조합이 현실과 동떨어진 투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전환의 전반적 추세와 정세를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제조업 노동조건을 견인해 온 역사의 궤적을 살피며 현 시기 과제를 도출하고 노조-지부-지회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당선인 교육을 통해 각 지회 임원들이 투쟁의 시야를 넓히고 전술을 날카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었길 기대해본다.